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04호 【루게 제24352호】 주제102(2013)년 10월 31일 (목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조선인민군 화력타격훈련을 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조선인민군 화력타격훈련을 보시였다.

최룡해 동지, 리영길 동지, 장정남 동지, 변인선 동지, 김수길 동지, 량철성 동지, 리병철 동지, 김영철 동지, 박정천 동지, 림광일 동지, 한광상 동지, 김경욱 동지와 무력기관의 지휘성원들이 훈련을 보았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으로부터 영접보고를 받으신 다음 감시소에서 훈련진행계획과 타격부대의 배치상태에 대하여 청취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훈련을 시작할 때 대한 명령을 주시였다.

구름이 내리자 하늘을 썰며 급강하하는 영웅한 비행대들과 각종 지상포들에서 시뻘건 불줄기들이 연해연방 뿜어지고 목표구역들에서는 삼단같은 불길이 치솟아 올랐다.

우뢰같은 폭음과 포성이 하늘과 땅을 진감하는 속에 목표들이 송두리채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은 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 환호를 울리며 걱정을 누르지 못하였다.

혁명적신념과 배짱의 최고화신인 회세의 천출명장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를 닮은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전투적기상을 만천하에 떨친 훈련은 가슴후련히 계속되였다.



철웅성같이 수호할 수 있게 튼튼히 준비된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훈련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강철의 정예대오인 조선인민군이 있기에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은 금성철벽이며 우리 당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이 오늘 진행된 훈련을 보면서 중대를 펼 펼 나는 일당백의 싸움군들의 집단으로 꾸밀 결심을 더 굳게 가지였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군의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이 중대에 들어가면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 다진 맹세대로 싸움준비완성과 전투력강화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중대를 무적필승의 전투대로, 최정예혁명강군으로 만들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전군의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은 인민군대를 백전백승의 혁명무력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해 또다시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자기들과 함께 훈련을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의도를 심장깊이 새겨안고 중대를 김정은제일천위대, 제일결사대로 튼튼히 준비시킬 불타는 열의에 충만되어있었다.

본사정치모도반

훈련장상공에 축포탄이 장쾌하게 터져 올라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의 가슴마다에 희열을 더해주었다.

훈련은 무비의 담력과 강철의 의지, 락월한 지략으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온갖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나라의 존엄과 민족의 자주권을 견결히 수호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손길 아래

천하무적의 강군으로 자라난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은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선군령도로 조선인민군을 천만대적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강군으로 키워주시고 강위력한 자위적국방력을 튼튼히 다져주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위대한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총대로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기어이 완성하고야말 굳은 결의를 다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훈련에 참가한 인민군장병들이 사회주의조국을

시킴을 위하여 또다시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자기들과 함께 훈련을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의도를 심장깊이 새겨안고 중대를 김정은제일천위대, 제일결사대로 튼튼히 준비시킬 불타는 열의에 충만되어있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조선인민군 화력라격훈련을 보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267군부대의 군인건설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훌륭히 일떠세우는데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조선인민군 제267군부대의 군인건설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크나큰 영광을 지닌 군인건설자들의 가슴은 감격과 환희로 설레이고있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경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군인건설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며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답게 사회주의대건설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의 애국적헌신성과 고귀한 노력이 뜨겁게 깃들었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267군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이 앞으로도 당이 맡겨준 강성국가건설의 새로운 전구마다에서 선도자적역할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와 <김정은 결사옹위!> 구호의 함성이 터져올라 장내를 진감하였다.

조선인민군 제267군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은 자기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어 시대의 영웅으로, 위훈의 창조자로 내세워 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올리면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부강조국건설위업실현에 한몸 다 바쳐갈

전투장들에서 군위부대, 영웅부대의 전투적 군인건설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었다. 전쟁승리기념관,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 비롯한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마다에는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기백과 결사판철의 정신을 남김없이 파시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조국해방 살림집,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를 당의 구상을 앞장에서 받아들여온 군부대 본사정지보도반

짜히아긴 엘베그도르취 몽골대통령이 박봉주 내각총리를 만났다

짜히아긴 엘베그도르취 몽골 대통령이 30일 만수대의사당에 서 박봉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를 만났다.

여기에는 몸짱완단긴 볼드 대외관계장, 마니바드라힌 간 대외정책고문, 판계인사들이 참가하였다.

리룡남 무역상, 박길연 외무성 부상, 손광호 체육성 부상, 홍규 몽골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판계부문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담화는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조선과 몽골 두 나라 소년축구선수들의 혼합경기가 있었다

조선과 몽골 두 나라 소년축구선수들의 혼합경기가 30일 김일성경기장에서 진행되었다.

경기장에는 조선과 몽골 두 나라 기발이 나뉘고있었으며 몽골인민의 친선의 사절을 환영하는 구호들이 나뉘고있었다.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하고있는 몽골대통령 짜히아긴 엘베그도르취와 일행, 주조 몽골대사관 성원들이 경기를 관람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와 판계부문 일군들, 시내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함께 경기를 보았다.

두 나라 소년축구선수들이 경기장에 입장하자 관람자들은 박수로 환영하였다.

경기에 앞서 몽골대통령은 두 나라 선수들을 만나 고무해주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선수들은 흥림과 백림으로 나누어 공방전을 벌리었다.

두 나라 선수들이 혼합팀을 이룬것으로 하여 이체를 면 경기는 관람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선수들이 마음을 맞추어 팀의 진술을 잘 살리며 적극적으로 벌린 경기에서는 백림이 2:1로 이겼다.

관람자들은 나이는 어리지만 축구기술과 집단주의정신, 고상한 도덕품성을 잘 보여준 양팀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시중 열정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된 경기는 두 나라 인민들과 청소년학생들사이의 친선의 정을 두터이하는 계기로 되었다.



몽골대통령이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만났다

몽골대통령 짜히아긴 엘베그도르취각하는 30일 백화원영민관에서 의례방문하여온 최태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박길연 외무성 부상, 홍규 몽골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판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몸짱완단긴 볼드 대외관계장, 마니바드라힌 간 볼드 주조 몽골특명전권대사, 할트마긴 바

공화국 내각에서 2013년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들을 위하여 연회 마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에서는 2013년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들을 위하여 30일 유류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겸 평양시당 책임비서 문경덕동지와 김용진내각부총리, 리종무체육상, 오금철 조선인민군 상장, 판계부문 일군들, 선수, 감독들이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김용진내각부총리가 연설하였다.

그는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하여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고 선군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온 세상에 떨친 엄운철, 김은국선수들을 축하하였다.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이룩된 성과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높이 받들어 우리 나라를 하루빨리 체육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시려고 그처럼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따뜻한 사랑이 낳은 빛나는 결실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모든 체육인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을 한시도 잊지 말고 육체, 기술적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함으로써 국제경기마다에서 금메달을 쟁취하여 조국의 영예를 빛내일 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어 엄운철선수가 답사를 하였다.

그는 우리 체육인들의 열화같은 충정과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담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었다.

우승의 영예를 지니고 애국가

의 장중한 선물속에 계양되는 람홍색공화국기를 바라보며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앞으로 배투의 훈련열풍을 세계에 일으켜 국제경기들에서 우승함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실천으로 받아내갈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경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안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조선중앙통신]

몽골 대통령 화환 진정

몽골대통령 짜히아긴 엘베그도르취각하는 30일 대성산혁명렬사릉에 화환을 진정하였다.

화환진정에는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부인, 그밖의 일행이 참가하였다.

박의춘 외무상, 차희립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홍규 몽골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여기에 참가하였다.

혁명렬사릉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우리 나라 애국가와 몽골국가가 주악된 다음 대통령의 명으로 된 화환이 혁명렬사릉에 진정되었다.

화환의 명기에는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투쟁한 조선의 영웅들의 위훈은 영원할 것이다>라는 글말이 쓰여져있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나라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고귀한 생애를 바친 항일혁명렬사들을 추모하여 목상하였다.

대통령과 일행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그이를 추모하여 목상하였다.

손님들은 혁명렬사릉을 돌아보았다.



마식령스키장건설장으로

남강마을을 녀성들처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선군혁명의 천하지배 본이며 우리 사회의 밑뿌리인 군민대단결의 힘으로 마식령스키장건설을 힘있게 내밀어야 한다.》



20명에 가까운 이들은

건설장을 찾은 어제날의 교육자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은 문화생활조건을 마련해 주려는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수도의 시민들이 마식령스키장건설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인민군대가 어렵고 중대한 임무를 수행할 때마다 불시강입으로 원호하며 한전호에서 싸워왔다.》

당사상선전의 전초병인 영예를 안고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총동원력이 힘있게 벌어지는 격동적인 현실의 요구에 맞게 학습강사들의 역할을 높여 대고조전군을 힘있게 추동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선전동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하여서는 학습강사, 강연강사, 선동원, 5호합당선전원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신민주주의 판관리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에 대한 충실성은 더없이 맑고 깨끗하여야 하며 진실하고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선군시대 모범 학습강사들

직판물 500여점을 만들어 대중교양에 리용하여 학습반성원들을 선군사상과 당정책으로 무장시키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학습반성원들을 당의 사상과 로선으로 무장시키는것과 함께 뒤떨어진 중업원들을 꾸준히 교양개조하여 그들이 고급기능공으로, 로력혁신자로, 조진로동당원으로 자라나는데 적극 기여하였으며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생산설비들을 개조하고 그 능력을 높여 직장앞에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해마다 넘쳐 수행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우주를 정복할 기세를 안고 최첨단과학기술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가는 해산신발공장 3대혁명소조원들이다. 그들의 가슴아름다운 3대혁명소조원들의 기술혁신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청춘의 열정과 창조적 지혜를 다 바치며 끝장을 볼 때까지 이악하게 투쟁하여야 한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이 소중히 간직되어 있다.

농사일을 함께 책임진 립장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관철에 펼쳐나선 강원도송천면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날말리기 등 들과 농업부문에 더 많은 전기를 보내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도송배전부일군들은 농업근로자들과 농사를 함께 책임진 주안다운 립장에서 협동농장들에 필요한 전력을 최우선 보장하도록 면밀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다.

우리 나라와 스웨덴사이의 외교관계설정 40돐에 즈음한 사진 및 미술전시회 개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스웨덴사이에 맺어진 외교관계 설정 40돐에 즈음하여 스웨덴에서 사진 및 미술전시회가 30일 평양에서 문화회관에서 개막되었다. 개막식에는 조선스웨덴에 친선협회 위원장인 서호원 대외문화협력위원회 부위원장, 관계 문화부 일군들, 시내 근로자들과 칼 울로프 안데르손 주조 스웨덴대사관 대사관, 대사관 성원이 참가하였다. 주조 여러 나라 대사관 성원들과, 국제기구대표부성원들이 여기에 초대되었다.

중국대사관 성원들 략암협동농장에서 친선로동

류홍재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30일 순안구역 조중친선택양협동농장에서 친선로동을 하였다. 순안농장은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현지지도사적이

병사의 경례

《고원군인병원의료일군들과 군의 일군들, 인민들에 대한 이야기》

《환자의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우리 병원이 생긴 이래 이런 환자는 아마 처음일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Table with 3 columns: Date, Time, and Location. It lists dates from 11월 11일 to 11월 21일 and corresponding times and locations like 평양지방 and 청진지방.

11월 11일 (8-10시), 10일 (6-8시), 12일 (20-22시), 17일 (22-24시), 20일 (8-10시), 24일 (3-5시), 26일 (19-21시).

11월 중 지자기 현상

11월 11일 (18-20시), 10일 (5-7시), 17일 (23-24시), 23일 (2-4시), 26일 (20-22시), 청진지방 3일 (6-8시), 6일 (17-19시).

11월 11일 (8-10시), 10일 (6-8시), 12일 (20-22시), 17일 (22-24시), 20일 (8-10시), 24일 (3-5시), 26일 (19-21시).

